

# “기름값 더 오르기 전에 넣자”...주유소 앞 150m 대기 행렬

### 광주 서구 ‘l 당 1645원’ 주유소 차량으로 북적...일대 도로 혼잡 “가득” 주유 30% 늘어...광주 휘발유값 11개월만에 1700원 돌파

“기름 넣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흔히 하는 말이지만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파파로 와달네요...”

지난 17일 오후 2시에 찾은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유소. 이 주유소 앞 도로는 입구에서부터 150m 떨어진 곳까지 차량이 4대만 주유소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방에 주유소가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는 거리에서부터 차량 정체가 시작됐고, 그 여파로 주변 삼거리 도로까지 정체가 빚어졌다.

주유기가 4개인 이 주유소는 양방향으로 총 8곳에서 주유가 가능하지만 대다수 차량의 주유구는 왼쪽에 있는 탓에 동시 주유는 4대만 이뤄졌다.

기다리다 못한 한 운전자는 답답함을 느꼈는지 차를 출구 방향으로 몰고 나갔다가, 다시 반대 주유구 쪽으로 주차한 뒤 기름을 채워 넣었다.

이 주유소 앞이 이토록 붐비는 이유는 지난 17일 기준, 휘발유 기준 l 당 1645원으로 광주 서구 지역 중 가장 저렴한 곳이기 때문이다. 경유도 l 당 1509원으로 다른 곳보다 많게는 100원 가까이 저

렴해 주유를 하려는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때문인지 운전자들은 최소 20분은 기다려야 주유를 할 수 있었다.

이날 주유소는 평소와 다른 모습도 보였다. 이곳을 찾은 운전자 중 여럿은 직원에게 금액 단위로 주유를 요청하지 않고 “가득이요” 혹은 “만땅 넣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주유소 직원은 “평소보다 ‘가득’ 넣는 손님들이 30% 정도 늘었다”며 “기름값이 매일 오르니 더 오르기 전에 채워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운전자 김모(32·광주 서구 치평동)씨는 “일주일 전보다 l 당 20원 정도 오른 것 같다. 평소 5만 원을 넣으면 차량 기름 잔량 눈금이 6칸 올랐는데, 오늘은 5칸 밖에 안 올랐다”며 “기름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이 주유소에서 직선거리로 170여m 떨어진 주유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주유소는 ‘셀프주유소’인데 l 당 가격이 1645원으로 앞서 방문했던 주유소와 같은 가격이었다. 이 주유소 역시 입구에서부터 도로까지 차량

10여 대가 비상등을 켜놓은 채 진입을 기다리면서 도로가 혼잡할 정도였다.

전정부지 치솟는 기름값에 ‘조금이라도 더싼 주유소’를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서민들의 기름값 부담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4원 오른 l 당 1703.01원을 기록했다.

광주지역 휘발유 가격은 지난 17일 1700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해 9월 21일(1701.30원) 이후 11개월 만이다.

경유값도 전날보다 2.77원 오른 1565.59원으로 l 당 1600원 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경유는 지난해 6월 30일 러-우 전쟁 등의 영향으로 l 당 2150.34원까지 오른 뒤 이후 점차 하락, 올 7월 7일 1365.1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약 한 달만인 지난 10일 1508.57원으로 1500원대를 돌파한 뒤 계속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전남지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원 오른 1723.22원, 경유는 1.75원 오른 1583.55원을 기록 중이다.

이처럼 지역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기름값은 연일 오르는 것과 달리, 이번 주 국제 유가는 중국의 부동산 불안 심화, 미국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주유소 입구가 차량들로 인해 정체를 빚고 있다.

능성 시사, 이란의 원유 증산 및 핵협상 복원 희망 발표 등을 이유로 소폭 하락했다.

다만 국제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고 해도 국제유가 등락이 약 2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제품 가격에

반영된다는 것을 감안, 최근까지 국제 유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에서 당분간 국내 제품 판매 가격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광주은행, 을지연습 안보교육 특별강연 실시

### 21~23일 본점서 시민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지난 18일 한명기 명지대학교수를 초청해 ‘격변기에 성장하는 한국의 역사와 미래’를 주제로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강연은 러-우 전쟁 등 국제 갈등 속에서 안보의식을 높이고, 한·중 경쟁 심화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주변국들의 정세에 민감한 한반도의 상황과,

이에 따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자 마련했다.

광주은행은 을지연습 기간인 21~23일 본점 1층 로비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20년, 비상대비태세 확립 유공 대통령 기린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무등산 수박 나왔어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 1층 청과매장 직원들이 ‘무등산 수박’을 선보이고 있다. 지역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은 무등산 기슭의 안개와 이슬을 맞고 낙엽으로 형성된 비옥한 토질 속에서 재배돼 풍미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광주점에서는 무등산 수박을 무게별로 한 통에 59만8000원(26kg), 34만8000원(17kg)에 각각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광주경총, 1616회 금요조찬 포럼 개최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양진석·우호원 회장)는 지난 18일 힐리데이인 광주호텔에서 김광기 ESG 경제 대표를 초청해 주제로 1616회 금요조찬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강연에서 김 대표는 ‘ESG 법제화와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2025년부터 시행되는 ESG공시의 무화에 대한 대응방법과 데이터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광주경총은 오는 25일에는 양정열 광주지방법고

노동청장을 초청해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주제로 1617회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1990년 6월 1일 첫회를 시작한 이래로 33년 간 매주 금요일마다 경제, 경영, 인문학 등 다양한 시대적 현안을 주제로 저명인사와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강연을 진행 중이다. 한국기록원으로부터 국내 최장수 포럼으로 인증받을 만큼 전국적으로 그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수자원공사, 신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합격’

한국수자원공사는 20일 ‘신안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이 성과판정위원회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

았다고 밝혔다.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신안군 현대화사업 유수율은 89%로 도서지역 지자체 최초로 사업 목표를 달성했다.

현대화사업은 농어촌지역 상수관망의 누수율을 개선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017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다.

전국 총 175개, 전남도 내 20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신안군 현대화사업은 수자원공사가 위탁, 시행 중이다.

신안군 현대화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총 306억 7600만원을 투입, 노후 상수관망 56.3km를 정비하고,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76개의 유량계를 설치, 효율적인 누수 감시를 가능하게 했고 원격검침을 도입했다. 그 결과 유수율은 50.3%에서 89.0%까지 끌어올렸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081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1	9	16	23	24	38	17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343,892,944			11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46,708,012			92	
3	5개 숫자일치	1,470,112			2,923	
4	4개 숫자일치	50,000			143,152	
5	3개 숫자일치	5,000			2,390,493	

## “LK-99’ 초전도성 측정 결과 없다”

### 한국초전도저온학회, 샘플 일부 제조 후 측정

우리나라 연구팀이 상온-상압 초전도체라고 주장한 물질 ‘LK-99’ 검증에 나선 한국초전도저온학회 LK-99 검증위원회가 LK-99 제조공정에 따라 샘플을 일부 제조했으며 현재까지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측정 결과가 없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지난 18일 서면브리핑에서 “LK-99 제조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불순물이 포함된 시료(샘플) 및 불순물이 최소화된 단결정 시료를 일부 제조했다”며 “확보한 시료 특성을 측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초전도성을 나타내는 측정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검증위는 처음 검증위 발족 당시 검증에 참여한 서울대, 성균관대, 고려대 외 부산대, 한양대, 성균관대, 경희대가 추가로 참여해 총 7군데가 샘플 재현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한양대 고압연구소가 지난 11일 LK-99의 재료 중 하나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황산납을 외국에서 확보해 다른 연구실에 제공했고, 이후 샘플을 일부 제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증위는 최근 전 세계 연구진이 LK-99

복제를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이미 많은 외국 기관이 재현실험을 수행했다”며 반박했다.

최근 한 주간도 중국 후이중 과기대, 독일 막스 플랑크연구소 등이 이미 물성까지 측정해 초전도 특성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검증위는 국내 연구팀이 퀀텀에너지연구소의 LK-99와 같은 샘플을 제작하고 논문 실험결과와 같은 특성값이 측정되더라도 상온 초전도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증위는 “이런 경우에도 LK-99를 상온 초전도체라 보기 어렵다는 검증위 입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주식시장 약세에도 ‘빚투’ 식을 줄 모르네 신용거래용자 잔고 20조5570억 ‘올 최대’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달 들어 빚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기는 더 뜨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0조5570억원으로 올해 최대를 기록했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마치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레버리

지(차입) 투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연초 16조5310억원이었던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이달 들어 4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달 말(19조7380억원)보다는 8190억원 늘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의 신용잔고가 10조6470억원으로 올해 가장 많았다. 지난달 말(10조590억원) 대비 5880억원 증가했다.

코스닥시장의 신용잔고는 9조9100억원으로 지난달 말(9조6790억원)보다 2310억원 늘었다.

유가증권시장의 신용잔고 증가율(5.8%)이 코스닥시장 증가율(2.3%)보다 높았다.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각각 4.8%, 6.2% 하락하고 이차전지 종목 주기도 일제히 내렸지만, 이차전지 종목이 전체 신용잔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8일 기준 전체 시장의 신용잔고 중 POSCO홀딩스(7470억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포스코퓨처엠의 신용잔고는 4030억원으로 2번째로 많았다.

이어 에코프로비엠(3120억원), 엘앤에프(2910억원), 에코프로(2300억원) 등 이차전지 관련 종목이 각각 4위와 5위, 7위에 올랐다.

/연합뉴스